

포장업계 재도약 발판 마련 최선



김 선 창

(사)한국포장협회 회장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포장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충심 어린 격려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주변에서는 정치·사회·경제적 여건이 시시각각 변하여 포장업계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불황의 지속과 채산성 악화로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국내의 장기 불황과 위기가 겹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에 묻혀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는 기술개발, 설비자동화, 용도개발 확대 보급 등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구조조정의 변화를 예견해 왔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장기불황으로 이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우리 포장업계는 자본력의 취약성, 기술개발에 대한 어려움, 전문 고급인력 확보난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더욱 큰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장업계는 인고의 노력으로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산업임을 자부하며 일선 현장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재기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한국포장협회는 창립 이후 우리 포장업계가 결속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을 가속시켜 포장업계에 종사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본인 자신은 한 치의 여유도 없이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이 어려운 난국을 맞이하여 회장이라는 직책을 감당하기가 무척 부담스러웠지만 포장업계 종사자 여러분들의 성원을 업고 업계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먼저 극도로 침체된 경제난국을 감안하여 올해 협회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협회, 회원사, 포장업계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확장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운영방향을 수립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염원인 기초설비를 완성한 시험연구실운영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우리 협회는 시험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산업자원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산업자원부의 정책이 변화되면서 한국생산기술원내에 한국



공존공생 위해 포장인 모두의 관심 필요

포장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시험실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2007년 2월말까지 다시 시험실 운영계획서를 한국포장기술지원센터에 제출, 2008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는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포장산업단체장협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포장업계는 염원이었던 한국포장연합회의 설립을 이루어 냈으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운영방식에 있어 각 단체의 내부사정이 균일하지 못해 이견을 보여 왔고 정부가 이미 한국포장기술지원센터를 출범시켜 연합회 예산확보를 비롯한 포장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등 각종 문제가 돌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가칭)한국포장산업단체장협의회를 구성하여 4회의 모임을 갖은 결과 모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협의회가 출범했음을 자축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포장산업에 직결될 수 있는 자문기구로써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에 업계의 이익 구현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셋째, 경제 불안과 과당경쟁으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매년 결손운영을 하고 있는 포장업계의 안정을 위하여 회원사, 비회원사를 모두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포장업계가 위기를 타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끝으로 스스로 만든 단체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장인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위기 극복과 공존공생을 위해 포장업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인고의 노력으로 포장산업에 발전을 다짐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어린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한국포장협회 임직원 일동



선진 포장산업을 향해 새로운 각오가 필요



한 용 교

(사)한국포장협회 명예회장

전국의 포장산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포장인들과 관련단체, 지도기관, 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맞아 행복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세계는 자유무역이 정착되고 있는 국제화 시대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지 못하는 산업은 점차 도퇴된다는 냉엄한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으며, 우리 포장산업도 여기에 예외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부존자원이 열악한 우리나라는 포장산업의 기초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국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철저한 구조조정과 부단한 연구개발, 엄격한 품질관리 등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에 대처해 왔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원화의 절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국가간의 분쟁, 국내 정치의 혼란, 국내외적인 악재들이 겹쳐 전반적인 경기 침체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동남아 개발도상국들의 저가의 포장재들이 국내 시장을 본격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은 우리의 포장산업이 보다 빠르게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서 단기간의 이익과 혼자만 살아남겠다는 욕심인 업계간의 과당경쟁과 출혈경쟁일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위기국면으로 가는 길에 가속도를 붙인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난국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누차 말씀드려왔듯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과 정보공유를 통한 선의의 경쟁, 공존공생의 대원칙을 전제로 한 신뢰구축 등으로 “포장재 제값받기” 환경이 조성될 때야 비로소 지금의 상황에서 한 차원이 도약된 선진 포장산업이 정착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또한 난국 탈출의 유일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2007년 새해는 선진포장산업을 향해 전 업계가 새로운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을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해년(丁亥年) 새해는 모든 일이 계획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존공생 통한 공동 최선책 마련해야



전국 포장산업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게도 기대가 많았던 병술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정해년 새해가 밝은 빛살과 함께 우리 앞에 성큼 다가 왔습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수많은 마음의 상처와 풀어야 할 숙제만 잔뜩 안겨준 채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극심한 불경기로 인한 내수의 부진과 원화절상이 주된 요인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서로를 불신하고 나만 살기 위해 기본상도의를 무너뜨리고 덤핑이 일반화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더욱 어려움을 가속시켰다는 이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윤 영 옥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장

더구나 정해년은 지난해에 비해 더욱 경기가 둔화되고 어려움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경제계 연구기관 및 정부연구기관들의 전망을 보면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견뎌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무거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보니 냉정하게 현재의 상황을 살피고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 일수록 기본에 충실 하라”는 경험 많은 어르신들의 충고에 따라 우선 첫째,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업체끼리 기본을 지키고 다같이 공생하겠다는 마음 가짐을 가지고 조금씩 양보하여 공동의 최선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내가 어렵다고 덤핑을 자행하여 동종업계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연합단체인 (사)한국포장협회를 중심으로 회원간의 분쟁에 관심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조정과 조연을 주어 회원들이 문제 발생시 협회를 믿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포장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우리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마음을 합쳐 강력한 힘을 형성하고 공생공사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해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회사와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평안함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포장협회 설립목적을 이행 한다면 오히려 희망적



박 영 식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장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우선 전국의 포장산업 종사자들에게 모든 일들이 계획하신바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몇 년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해의 어려웠던 점을 생각하며 새해에는 보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보다 희망적인 계획을 구상했습니다만, 2006년 병술년(丙戌年)은 기억하기조차 싫은 한해로 실로 어렵고도 어려운 해였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같은 포장산업에 종사하던 동료들의 도산을 지켜보기도 했고, 실제 그들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간 원인은 200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이 2006년 내내 이어지고, 급격한 원화의 절상이 잉크의 원재료인 각종 용제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업계로선 생산비의 상승요인을 가져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또한 중동지역의 전쟁, 국내 정치상황의 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개발도상국들의 국내 시장 잠식, 북핵 문제 등 동시다발적인 악재들이 전반적으로 장기 경기침체 국면의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분석됩니다.

이제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원가절감을 위한 방안들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도 더욱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포장협회의 설립목적인 공정거래 질서 유지와 제반 규약들을 철저히 이행한다면 오히려 희망적이며 지금의 어려운 시기적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한 품질관리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신제품 연구개발에 부단한 노력, 동종 업계간의 출혈경쟁 지양, 국내외 시장 정보교류 및 공유, 공존 공생한다는 공감대 형성 등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07년 새해 전 포장산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고기능 포장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아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포장인과 가족 여러분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6년은 우리 포장업계에 매우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2003년도부터 지속되어 온 고유가 및 주요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2006년에 들어 포장용 주요 원자재의 공급 Shortage 현상까지 발생하여 사상 초유의 원재료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재료의 인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고 직간접 수입 의존도가 큰 국내기업들로서는 승자(勝者)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전반의 악조건 하에서도 성실과 책임감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며 이 난관을 극복해 오신 포장인들의 지혜와 용기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2007년 새해도 우리의 앞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더욱 힘든 난관들이 산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 경쟁력의 약화, 중국, 인도 등 후발국가들의 저돌적 추격으로 협해지는 글로벌 경쟁,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포장업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해 오신 저력과 다져진 창의력으로 전 포장계가 일치단결하여 2007년에는 실질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2007년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빠르고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의 변화에 맞는 포장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급격히 국내 및 선진국의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어 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인당 소비금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Silver 포장', 자연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High Barrier 포장' 내용물을 투명하게 보이는 '안심 포장'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환경 보호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갑시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이 잦아지며 지구 온난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포장 산업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나 지금까지 소극적인 대응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포장인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포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Recycle이 용이한 'Recycle-designed 포장', 적은 재료를 사용하는 '경박단소(輕薄短小) 포장'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분해 포장(Eco-packaging)'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은 내용물의 단순 포장에서 내용물의 Value를 높여가는 고기능 포장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원가 중심의 포장에서 기능 중심으로, 더 나아가 Value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고기능 포장은 내용물의 다양한 발전으로 이어져 더욱 고기능 포장이 개발, 확산되는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7년은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고기능 포장'에 포장인 모두가 힘을 다합시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포장 산업이 미래의 성장 산업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포장인으로 인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이 태 화

(사)한국포장협회 PET필름 본부위원장

친환경적인 포장 필요성 및 가치 인식해야



전 병 성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포장인 여러분의 가정에 만목이 가득하길 빌면서 올 한해도 뜻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포장 없이는 상품거래가 불가능할 정도로 포장산업은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장은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조차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장산업의 발전에 따라 포장폐기물 역시 급증하여 생활폐기물 발생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포장폐기물관리는 생활폐기물관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포장도 포장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 '환경적 기능'을 부과하여야 할 때입니다. 즉, 포장폐기물의 양을 최소화 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물론 포장의 환경친화성 고려는 포장의 다른 기능들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포장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자국내 환경규제를 강화되고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장폐기물이 자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갖가지 규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포장에 관한 환경기준은 EU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에서 볼 수 있듯이 곧바로 상품에 대한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부에서는 지난해 포장재의 중금속 함유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장산업계에서도 포장재의 재활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007년이 포장인 여러분 모두가 환경 친화적인 포장의 필요성과 가치를 깊이 인식하시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

2015년, 포장산업 선진국을 향하여!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포장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7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포장산업은 착실한 성장을 통해 외형적으로는 세계 8위, 총생산액이 GDP의 약 1%인 15조에 이르는 거대산업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오늘날 포장은 제품의 보호 및 판매촉진에만 머무르지 않고 RFID, NT, 자동화 등 신기술과 결합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전자·의약·화장품 등 각종 수요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포장산업은 전반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여전한 가운데, 우리가 내수시장에 안주하고 있는 사이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의 추격이 무서운 기세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포장업체 대부분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기술개발을 담당할 포장관련 전문 인력이나 교육기관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장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2015년 선진국 기술력의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포장산업육성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10월에 포장기술 R&D를 총괄하는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우선 사업시행 첫해에는 '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을 통해 포장업체가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각종 기술수요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는 포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험분석, 국제 전시회 지원, 인력양성 등으로 제반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포장인 여러분의 진취적인 도전정신과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가 결합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포장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허 남 용

산업자원부 디자인브랜드팀 팀장

용기 포장 인프라 확충의 원년 되길



이 영 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과 과장

돼지의 해, 그것도 붉은 돼지, 황금 돼지하며 다양한 희망이 얘기되는 2007년 정해(丁亥)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기대와 포부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고나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정보, 다양한 지식과 변화의 홍수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제와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지친 일상을 다잡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활력을 줍니다.

그동안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포장의 개발 보급에 앞장서 주신 업계와 이를 독려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격려해 주신 월간 포장계 관계자 및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많은 식품관련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식약청도 매우 바쁘게 지내온 한 해였습니다.

현재 식약청은 관리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제적 조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들의 열악한 제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돌아보면 전 세계의 위해정보를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펴는 등 진일보한 면은 있으나, 아직도 업계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최근 사회가 글로벌화, 네트워크화 되면서 한 가지 사회문제가 순식간에 이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구성원 공동의 문제로 파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무의식중에 식품용 포장의 안전관리가 업계의 이익에는 상충하는 정부만의 문제로 인식되던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취약한 국내 용기포장 관련 연구 인프라 확충과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07년을 포장업계 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학계 등 사회 전체에서 용기포장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확대되는 용기포장 인프라 확충의 원년으로 자리잡기를 희망해 봅니다. ☐

자원순환사회 건설 위해 지속 노력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이끌어내야 할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포장산업 종사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포장은 제품을 수송·보관함에 있어서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며, 수출지향적 산업구조인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발전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포장 자체의 상품성이 커져서 포장이 아름답고 화려한 제품들의 판매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포장재, 포장방법의 등장은 우리나라 포장산업의 성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포장폐기물의 증가라는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포장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의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650만톤이 넘습니다. 분리 배출·수거할 경우 상당 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데도 생활 폐기물에 섞여 배출되는 양이 많다고 합니다. 포장산업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포장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우리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교육과 실천의식 정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장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큰 만큼 친환경 포장재,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포장재를 개발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포장산업 종사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사는 자원이 순환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포장검사부문에 대해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공사는 과도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인 포장재질·포장방법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 시점에서, 과도한 포장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7년은 재물운이 넘치는 황금돼지의 해라고들 합니다.

여러분에게 재물 뿐 아니라 웃음과 건강과 풍요로운 마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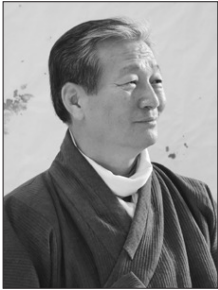


고재영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포장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하 영 선

(사)한국포장학회 회장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포장인 모두가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 협력하여 포장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나라의 포장산업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진해온 결과 불과 수십년 동안에 경이로운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우리 포장계의 산학관연의 여러 가지 여건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한국포장학회 회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혼신의 정열을 다하여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포장학회는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우수학회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본포장학회와 한일 양국의 포장학회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1년에 한번 국제학술지(영문)를 발행하기로 10월 동경에서의 도쿄팩과 세계포장학술대회에서 일본포장학회 임원들과 만나 협의를 마쳤습니다.

내년 봄 우리나라의 킨텍스에서 양국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양국이 번갈아가며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하고 국제학술잡지를 발행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SCI 등급으로 학회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국내에서도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서 인정을 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의 포장학과 설립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포장기술편람 발간사업과 포장기술지도사업 참여 등 산학관연의 협력을 통한 국가의 포장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체의 포장기술 향상을 위하여 산업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도 병행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포장산업 연구개발(R&D)의 기능이 지금보다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산업이던지 신제품의 개발이 계속되어야 하고 신제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광범위하여 각각의 영역이 있고 전문가들도 각자의 활동영역이 따로 있어 포장이라는 한 테두리에 다 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의 유기적인 협력과 협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장의 발전은 포장이 포함하는 전 영역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의 공동적인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과 협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해년 새해에는 포장분야의 산학관연이 다 함께 우리 국가의 포장경쟁력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 협력하여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우리 포장인 모두와 포장산업이 더욱 더 발전하고 보람찬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연구개발 통한 새로운 기술도입 계속되어야

다사다난하였던 병술년이 가고 정해년의 새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포장기술인은 물론 모든 포장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포장인과 가족여러분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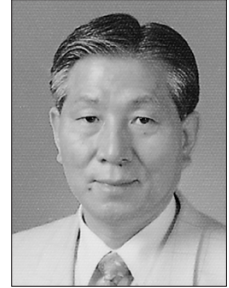
오늘날 포장기술인의 역할은 보호기능의 충족은 물론 제품특성에 따른 안정성, 친환경성, 편이성, 물류적합성 및 시대가 요구하는 특성에 포장기술을 응용하는 새로운 분야까지의 확대 등 실로 다방면의 끝도 없는 지식과 응용기술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여의 기간동안 소재는 계속 상승하였으나 수요처의 어려움 등으로 포장재의 납품가격이 거의 동결되었고 어떤 대기업의 경우 납품가격의 인상은 커녕 오히려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컨버팅 업체는 물론 컨버팅 업체에 납품되는 원부자재 가격도 적정화되지 못해 포장산업 전체가 긴 수렁에 빠져 도산기업이 발생하여 원부자재 납품회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도산 예상 기업이 거명되고 기존 거래업체에 가격인상을 강권하는 때를 같이하여 기존거래 업체외에 신규 업체에 견적요청이나 거래를 하여 인상을 유보시키거나 인하를 유도하고 있어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물론 상거래 질서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총체적 난관에 접어든 것이 오늘날의 포장업체의 현 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포장업체가 이처럼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우리 포장기술인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체계화를 통하여 신제품의 개발, 로스의 절감,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과 품목의 다양화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으며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포장산업은 종전의 수출지원을 떠나 상품을 만들어 이익을 창출하고 다양화 시켜 풍요로운 삶의 해결사로서 산업자체가 선진화 업종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충족시켜가는 중요 산업임을 감안할 때 우리 포장기술인의 사명 또한 중차대한 것임을 재인식하고 긍지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 기업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포장기술인 여러분의 더 큰 역할을 주문함과 아울러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 영 호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회장



폐기물 부담금제도 개선 위해 각고 노력 펼칠 터



조 봉 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다사다난했던 2006년 병술년이 지나가고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2007년 정해년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월여류(歲月如流)란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 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회고해 보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할 일 많았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연합회의 업무와 업계의 높은 기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항상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원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그리고 우리 연합회 임직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이 없었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되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플라스틱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장으로서 앞으로도 매사에 신중하고 겸허한 태도로 임하면서 소임을 다할 것

을 약속드리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우리 연합회의 운영을 책임지면서 여러 사업들을 제안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난 해소와 수익창출을 위한 신공공구매지원제도의 활용 극대화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쓰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신공공구매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위주로 40여 년 간 운영되어 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틀을 일시에 바꾼다는 것이 그리 녹록치는 않겠지만, 신공공 구매제도를 우리 회원조합 및 회원조합원사와 플라스틱 업종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판로지원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정부의 개선방안에 우리 업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소중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을 우리 업계 스스로가 재활용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폐기물부담금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업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폐기물부담금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합회는 정부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도입을 요구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에 온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은 생산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정부, 원료메이커, 제품 생산업체, 소비자 모두가 폐플라스틱의 분리배출과 수거, 재활용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대기업인 원료메이커에 기반구축 자금을 부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업계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원료공급과 경쟁력 있는 원료가격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국내 원료생산 대기업과 협력도 하겠으며, 할당관세를 적극 활용하여 원료수입물량도 과감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플라스틱 제조 업계 인력 양성 교육 실시

이 뿐만 아니라 중장기 사업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의 플라스틱 관련 주요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제 학술회의 활동 참여는 물론 우리 연합회가 직접 플라스틱 제품 전시회를 열어 회원조합원사의 수출촉진을 지원하고 기술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경영 및 기술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대학부설연구소 등과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전문 기술인 양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경기동향 등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플라스틱 가공업의 하이테크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연합회와 회원조합, 회원조합원사간의 신뢰구축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연합회를 구심체로 하여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된다면 어떠한 난관이나 변화에도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연합회는 해당 회원조합이 운영을 제대로 못해 없어진 단체수의계약지정물품을 연합회가 되찾아와 대행함으로써 회원조합원사에 혜택을 주었고 플라스틱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 도입으로 국내 원료가격 인상 억제 효과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시험원의 시험건수를 대폭 늘려 수익구조를 개선하였으며, 회장은 물론 전 직원들이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업예산을 절약하는 한편 공석 중인 전무이사를 내부에서 승진시켜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을 실시하여 흑자경영을 실현하였습니다.

이처럼 내수 부진과 원료가격 급등 등 최악의 경영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플라스틱산업 현장을 지켜온 플라스틱 인들과 연합회 임직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 연합회는 누적 부채 일부를 상환하였으며, 금년에도 다양한 사업 추진과 규모의 경영을 실현하여 나머지 부채도 모두 갚아 나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 인생에서 또 다른 어떤 일이 맡겨질지 모르겠지만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해 한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깨끗한 연합회 운영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연합회 및 회원조합, 회원조합원사의 수익극대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거두리라 믿기에 씨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제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는 상서롭고 복된 기운이 가정마다 직장마다 넘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환경변화에 만전을



최 창 군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희망의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적정가격 확보와 동시에 공공구매의 확대 시행으로 물량이 배가 증가되며, 대선특수도 기대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쇄인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 업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업계전체에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어느 때 보다도 화합하고 일치단결하는 모습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계시다시피 2007년부터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대부분 경쟁 입찰제도로 전환됩니다.

수십년간 이 제도에 의존해 온 협동조합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제도였기에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연합회에서는 그동안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마련에 부심해 왔습니다. 타 업종의 연합회 또는 조합과 연대하여 제도 연장을 강력히 추진하였고 경쟁입찰제도로 전환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노력으로 적격심사제도의 도입은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하루빨리 적응하고 연합회를 중심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모으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특히 복수조합 또는 사업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해서 치밀한 계획없이 조합 설립에 나선다면 큰 혼란과 인쇄인간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지고 인쇄물 가격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에 적응한다는 이유로 연합회나 기존 조합과 협의 없이 조합설립 등에 나서는 일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연합회는 올해에 이 같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쇄인 및 조합원 여러분과 기존조합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연구와 대정부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한 곳으로 모아진다면 오늘의 위기극복은 물론 인쇄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연합회에서는 2007년도에 문화협회와 서울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의 제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각 조합의 생존방안, 새로운 입찰제도의 연구, 수출증대, 신규인쇄물 창출, 국제교류, 위상제고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난관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연합회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한목소리를 내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모두가 화합하여 잠재된 역량을 결집시켜 신기술을 개발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내일의 도약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행운을 상징하는 돼지 띠 해를 맞아 다시 한번 인쇄인 여러분의 땀내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저비용 고효율 운영 및 인프라 구축 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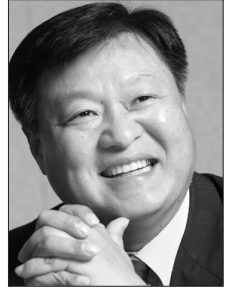


2007년의 정해년 희망찬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사)한국포장협회 임직원과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06년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지속적인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 등의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북한 핵 실험 파문, 사행성게임 사태의 책임소재와 관련한 논란, 일본의 독도해역 도발 파문 등 경제, 사회적으로 어두운 사건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정 수 용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회장

새해를 맞는 지금,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적인 여건이 여전히 밝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안 과제와 미래에 대해 우리는 대단한 각오와 새로운 도약을 기약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대선과 같이 국가의 큰 변화를 맞는 해이기에 이럴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간다면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플라스틱은 대표적 용기포장재로서 기능성, 기술성 등 다방면에서의 개발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유가 폭등이라는 악재까지 겹치고 있어 플라스틱 용기포장 산업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업계 모두가 힘을 모아 다각도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의 발전과 활성화는 용기포장재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환경친화적 이미지 확대,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이어짐으로서 플라스틱 업계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EPR 제도가 시행되고 저희 협회가 플라스틱 재활용 공제사업을 시작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협회는 공제사업의 충실한 이행과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적인 재활용 체계 구축, 재활용제품의 판매확대를 늘리고 각종 홍보·조사,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협회의 내실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운영과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더욱 더 정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포장단체장 협의회 중심으로 업계공통 의견 도출되길



석용찬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회장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해가 저물고, 2007년 정해년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포장산업 관계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도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정치적 대립과 갈등, 부동산 과열, 한미FTA 문제 등 사회전반에 걸쳐 밀운불우(密雲不雨)의 답답하고 불안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순탄하게 풀려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플라스틱포장업계도 오랜 과제인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규제, 폐기물부담금 부과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플라스틱은 대표적인 포장재로서 농수산물·식품·생필품 등 일상생활 전에 걸쳐 여러 제품에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환경호르몬이 나온다, 재활용이 어렵다 등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폐기물 부담금 부과 등 불합리한 플라스틱 포장재사용 규제로 인한 혼선과 갈등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영현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새해에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계류 중인 폐기물부담금 제도와 관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통하여 업계의 진로와 희망을 찾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한해 포장업계는 오랫동안 논의 되어오던 포장대표단체 설립을 대신하여 『포장단체장협의회』가 결성되었고 정부도 생산기술연구원 산하에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를 발족하여 포장산업을 지원하는 창구를 마련함에 따라 새해에는 포장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장은 관련 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가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포장업계 및 단체의 이해관계와 포장업계를 아우르는 단일화된 중심점이 없었고 정부의 지원기관 부재로 인하여 포장산업은 지난 10여년간 산업 발전의 호기를 놓친 점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포장은 종합산업이므로 각 단체별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각 단체가 이해를 같이하는 공동운명으로서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때 늦은 감은 있지만 포장업계에는 포장산업의 미래를 위하여 산·학·연 관련 단체들의 협의체인 『포장단체장협의회』가 중심으로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계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고,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등 포장업계의 대정부 대화창구 역할을 수행함으로 향후 포장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해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

안전 식품 공급 체제 구축에 만전 기할터

2007년 정해년(丁亥年)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식품업계는 실로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과자의 아토피 유발논란 보도, 최대규모의 노로바이러스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식품업계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식품안전성 요구는 더욱 높아져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식품관련 법규 개정으로 식품산업에 대한 행정규제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그에 따른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여건에도 식품업계는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투명한 경영과 더욱 안전한 식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협회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대정부 건의, 정부 수입사업 수행, 국내·외 박람회 적극 참가, 저명인사 초청 조찬간담회, 식품산업최고경영자 세미나 개최와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업무 협력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하여 건전한 기업 경영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식품관련 학회와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과의 유대협력을 통해 식품산업 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00년 초부터 유행된 식문화의 웰빙(참살이)이 새로운 소비형태로 나타나고 최근에는 각종 유해물질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욕구가 늘고 각종 식품안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 공유와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 승 복

한국식품공업협회 회장

협회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IT산업과 식품산업을 접목시킨 전자상거래사업(B2B) 도입에 이어 식품분야의 생산이력추적시스템(RFID)을 실생활에 이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구축사업을 토대로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가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사고에 대비한 제조업체는 정보화 전략을 구축하여 식품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식품제조업체 등의 관리자에게는 식품안전관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어 다양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할 것이며 부설 한국식품연구소의 공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제조업체와 소비자에 품질검사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것입니다. 최근 정부 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각 부처에 있는 식품의 안전관리가 “식품안전처”로 일원화되면 식품안전관리의 전문성이 높아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립추진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입안과 집행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구축과 식품산업계에는 효율적인 기업 활동의 여건 조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식품산업 진흥 정책에도 힘써 식품안전관리와 함께 식품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균형잡힌 행정기관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때를 기다리면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식품업계의 발전 여건이 아주 밝은 편은 아니지만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기회로 전환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식품발전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기술 개발에 노력



강 수 기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지난 한 해는 식품업계 및 식품 관련 단체들에게는 매우 바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봄부터 식품사고가 끊이지 않더니 하반기 부터는 트랜스지방 저감 문제, 영·유아식에서 사카자키균의 발견, 그리고 연말에는 그동안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식품안전처 신설이 담보상태에 머무르는 등 우리 식품업계에 많은 숙제를 새해로 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그다지 간단치 않기 때문에 새해를 맞는 마음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더욱이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이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낮은 4%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산업은 경제성장률이 낮은 불황기에 저력을 발휘하여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산업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창의적인 시장 개척은 기업에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품안전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우리 농업과 식품관련 산업에서 양질의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우리 한국식품연구원은 공공적, 산업적, 과학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식품연구기관으로서 첨단 식품 기술뿐만 아니라 국민 식생활 안전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연구개발에 가일층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관심이 되는 식품 관련 이슈에 대해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생각을 교환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식품산업기술혁신포럼」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식품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입니다.

그 동안 한국식품연구원과 식품기술의 발전을 위해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한국식품연구원과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여러분의 높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새해에 식품산업계가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많은 발전을 이룩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친환경적 · 경제성 있는 패키지 개발 기대



정해년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여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맞이합니다. 특히 패키지관련 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과 도약을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패키지 산업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큼니다.

새로운 패키지 재료와 소재를 탐색하고 개발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와 구매 패턴에 맞는 용기와 사용자의 감성을 끌어내는 디자인의 개발도 요구됩니다. 물론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을 갖춘 패키지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더불어 외국 용기의 모방이나 재현보다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패키지 개발이 더 확장되고 이로 인해 산업계와 디자인계가 모두 성장하여 이익이 창출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새해에는 산업계와 학계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공조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학계의 인력이 교육적인 에너지로만 발휘 되지 말고 업계의 개발 저변에 용해되는 상호 의존의 체계가 더 적극적으로 모색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업계도 기 구축된 기술위에 조형적이고 기능성을 더할 수 있도록 학계와 연동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강화되어 패키지 산업에 일조하는 전략적 구조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산학협력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계와 업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발되는 기술은 곧 소비자들의 기호나 고객의 요구에 부합되는 상품으로 탄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21세기 지식 기반산업인 포장산업의 획을 긋는 다양한 노력이 선보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거듭 업계의 모든 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선 병 일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 회장

재활용 70% 상향 달성할 터



김 흥 기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회장

새해를 맞이하여 포장산업에 종사하시는 업계 관계자 분들과 “월간 포장계” 독자 여러분께 2007년 정해년(丁亥年)에는 행운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포장재로서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스티로폴은 1996년 재활용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전국의 시·군·구에서 분리수거 재활용품목으로 지정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된 페스티로폴은 지자체의 재활용센터나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재생수지의 중간원료인 잉고트로 생산되어 플라스틱 재생자원으로 탈바꿈되어 그림액자, 욕실발판, 건축자재 등 주로 수입 목재 제품의 대체제품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동안 스티로폴은 소각 시 다이옥신이 발생한다든지, 스티로폴 생산 시 프레온 가스를 사용한다는 등 많은 오해를 받아 왔습니다. 스티로폴은 산소와 수소 성분으로만 이뤄져 다이옥신이 발생될 수 없으며 발포가스로는 오존층 파괴와는 상관없는 일상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부탄과 펜탄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티로폴은 더 이상 환경을 오염시키는 애물단지가 아니며 오히려 2005년도 페스티로폴의 재활용률 67.1%에 이어 2006년에는 69%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고, 지난해 수출액만 590억원을 초과한 스티로폴 재활용 그림액자 역시 수출 효자상품으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정부가 2003년 1월부터 도입한 제품 및 포장재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제에 따라 전자제품제조업체, 농수축산물 스티로폴 포장재 제조업체, 스티로폴 상자로 포장된 식품·의약품 등의 제조업체 등 재활용 의무자와 연대하여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을 인가받아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 협회의 2006년도 사업계획은 재활용 목표율을 70%로 상향하고 환경마크 인증 획득 지원 등 재활용제품의 홍보지원과 재활용사업자 지원 및 협력 강화하고, 농수산물 포장제품의 용도개발에 노력하고, 재활용사업공제조합 회원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생산자재활용공제 조합 업무의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내 포장산업분야 언론의 최고 전문지인 “월간 포장계”는 새해에도 포장관련 기술 및 경영, 국내외의 최신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 역할을 기대 합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포장업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정해년, 물류산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이라는 것을 알리는 해

친애하는 물류 및 포장업계 가족 여러분

정해(丁亥)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병술(丙戌)년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지만, 2007년 새해에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해소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2002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는 글로벌 물류강국이라는 비전으로 새롭게 바뀌었고, 물류산업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 물류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도 큰 기대와 꿈을 안고,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묵묵히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2월 말이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도 물류산업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인물이 선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해 8월, 정부가 '2020 글로벌 물류강국'이라는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고,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발전 및 정치적 변화를 고려한 물류분야의 능동적인 대응전략의 수립과 로드맵 발표는 글로벌 물류강국의 건설에 첫 삽을 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2020년에 동북아물류의 관문이자 중심국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물류강국의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물류산업이며,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그 손색이 없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보여 주며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정부도 각 부처별로 산재해 추진되고 있는 물류정책에 있어서도 일관성과 연계성을 모색할 수 있는 구심점을 찾아서, 물류산업 종사자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아, 산학연관 모두가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해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사업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돼지꿈 많이 꾸시기 바라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서 병 훈

(사)한국물류협회 회장

새 출발 각오 다지는 정해년을



홍 우 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돼지는 건강과 재물을 상징합니다.

2007년은 60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 띠'의 해입니다. 행운을 상징하는 정해년 새해를 맞아 포장인 및 월간 포장계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2006년의 인쇄업계는 한마디로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당면한 난관들을 극복하고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가기 위한 노력도 그 어느 해보다 활발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인쇄물량 부족으로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웠고 인쇄부자재 가격의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자금난에 허덕였으며 수출업체 또한 환율 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협회에서는 차분하면서도 진지하게 인쇄업계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해 법정정 활동 외에도 인쇄의 위상제고와 수출증진,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와 공동으로 직지 및 인쇄문화 홍보전을 정부종합청사와 정읍평생학습축제, 국제인쇄산업전시회, 고성민속축제 등에서 개최하였으며 한·중인쇄협회와의 교류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동경도서전과 상해인쇄전시회에 한국인쇄관을 조성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인쇄기기를 전시하는 한편 인쇄업체들의 수출촉진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이앤엑스와 공동으로 킨텍스 전시장에서 국제인쇄산업전시회를 개최하였고 문화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와 수시로 만나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계에는 난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정해년 새해에도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법 제정은 우리 업계의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쇄의 위상제고, 수출증대, 국제교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신경영모델 연구, 인쇄물품질인증 연구, 신규인쇄물 창출을 위한 사업에도 전력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포장인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2007년은 변화와 혼란이 우리 업계를 엄습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화합과 단결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해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APSF가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주도할 것



다사 다나했던 지난 한해를 보내고 또다시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포장인들과 월간 포장계 독자여러분의 새해 큰 발전과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또한 국내정치 불안정, 국제유가 폭등, 북핵문제등과 함께 국내경기 하강속에서 유례없는 부동산 폭등 등 국내외로 대단히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파렛트 제조업계 또한 이러한 여건 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협회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사업이 결실을 맺어 아시아 파렛트 연맹(APSF)을 창설하여 앞으로 아시아 통합물류시스템구축의 기초가 되는 아시아 일관 수송용 평 파렛트 규격을 한, 중, 일 3개국 파렛트 전문가회의를 통한합의를 도출하여 APSF의 규격으로 제정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T-11형 파렛트의 보급확산과 유닛로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시아 유닛로드스쿨(가칭)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를 주도할 아시아 파렛트 연맹에 뜻을 같이할 많은 포장인들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포장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회원사 여러분의 용기와 창의로 새해에도 포장업계의 큰 발전이 전개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김 정 식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회장

패키지디자인 업계 정보와 인적 교류에 주력



이 권 식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회장

모든 것이 가능할 것만 같은 정해년,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누구나에게 기쁨과 용기를 가져다주듯이, 이번 정해년이 '월간 포장계' 여러분 모두에게 열정으로 가득 찬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각가지의 브랜드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브랜드는 살아남고 어떠한 브랜드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곤 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어떤 조건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비자들이 운동화를 산다면 그 브랜드의 운동화만 고집하고, 화장품을 산다면 그 브랜드의 화장품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품이 꼭 질적으로 우수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 운동화를 신으면 발이 편안하고 운동이 잘 될 것만 같고, 그 화장품을 사용하면 젊어질 것만 같고 그런 이미지를 브랜드로 인해서 심어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런 매니아적인 구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제품이기 보다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소비현상에서 패키지디자인은 한 가운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시 되고 있는 오늘 날에 패키지와 브랜드의 밀착이야말로 그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이해하고 기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하는 데에 있어서 패키지는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패키지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아 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 협회는 꾸준히 "대한민국 패키지디자인 대전-PACKSTAR"와 "대학생패키지디자인 씬머캠프" 및 장기적인 회원전과 국제전을 통하여 패키지 디자인계의 발전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패키지디자인 대전"의 경우 기업 간에는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경쟁의 장으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상해에서 갖은 "Asia Package Design"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국내 디자인을 홍보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디자인 수준을 과시하고 각국의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와 패키지디자인의 위상을 한 번 더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는 패키지디자인계의 정보와 인적교류는 물론 국제적 행사로써 감각과 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월간 포장계' 직원 및 포장계 여러분 모두가 행운이 가득하고 새해가 주는 희망을 모든 분들이 만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세계시장 개척에 주력



병술년(丙戌年) 개띠의 해가 저물고 정해년(丁亥年) 돼지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해년(丁亥年) 새해에는 돼지처럼 풍성한 복이 넘치고 건강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병술년이 벌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대망의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왜 그런지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국내정치가 안정이 안된 상태이고 북한에선 핵이다, 유도탄이다 하면서 세계정세를 혼돈에 빠트리고 있으며 집값 안정의 불안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상승 하기만하고 거리마다 매일 같이 대규모 시위는 끊임 줄 모르고 계속적인 인건비의 상승에 인재난까지 겹치고 환율은 하락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중소기업인에게 좋은 호재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내수경제는 수년째 풀리지 않아 소비와 설비 증설이 증가 하지 않고 있음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약 4.4%선으로 예측 한다 하니 정말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00억불 수출의 위업에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달러의 환율이 920원대로 하락 했으니 향후 전망은 우리를 너무나도 우울하게 합니다. 그나마 수출로 만회하던 업체로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 상 식

한국포장기계협회 회장

우리 포장기계협회의 해외시장 개척의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기존의 중국시장을 상해와 북경과 광주 지역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의 적극적인 공략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신규 시장 개척으로는 인도시장 이래 베트남에 새로이 진출하고 러시아, 인도네시아 시장은 물론 태국 시장 진출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3월 중국 광주에서 개최예정인 SinoPack 2007 전시회와 6월 개최 예정인 중국 상해의 Packaging 2007 전시회와 러시아 모스크바의 rosupack 2007 전시회 및 7월에 열리는 중국 상해의 ProPak China 2007 전시회는 이미 정부의 자금지원을 신청하여 한국관으로 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India Pack 2006 전시회는 인도 전략 수출시장 진출 컨소시엄 사업으로 중기청과 외교통산부의 자금지원 하에 국가관으로 참가하여 큰 성과를 얻었으며 BRICs 시장과 VRICs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베트남을 신 시장으로 목표를 두고 이들 해외 전시회를 통하여 수출의 돌파구를 찾아 내수 부진의 한계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약 70여 회원사의 공장방문을 통해 느낀 것은 모든 회원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최소 작년수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으나 많은 회원사들이 중국과 베트남 인도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동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매우 활발하였습니다. 역시 일손 부족의 애로와 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수출로 인한 환차손은 새해에도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는 지혜와 슬기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잘 타개하고 수출에 역점을 두어 새로운 세계시장개척에 주력하는 해로 시작하여 후회 없는 한해가되기를 바라며 포장에 애정을 가진 모든 이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

공업포장 기능사 자격 제도 도입 검토



임 경 빈

한국중량물포장협회 회장

힘들었던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포장인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드립니다.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2006년은 매우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새해의 경제 전망도 매우 어둡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량물포장업계도 원자재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 둔화에 의한 물동량의 감소, 수출업체로부터의 계속적인 가격 인하 요구 등에 의하여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새해에도 지속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협회는 원가 절감을 위한 포장설계 간이화 연구, 공동 구매를 통한 저렴한 원부자재의 확보를 통하여 포장 가격의 절감을 달성하여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우수한 기능공 양성을 위하여 공업포장기능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 검토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해 5월에는 한, 중, 일 3국 단체간의 포장기술 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교류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교류회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3국간의 정보 교류의 활성화, 용어 및 규격의 통일, 인적 교류를 통하여 공동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06년에는 “수출품 포장용 바깥틀상자”의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포장기술자 교육용 교재를 제작하는데 주력하였는데 신년에는 나무상자 관련 KS규격서의 해설집을 제작, 배포하여 포장 설계자가 KS규격을 쉽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국이 목재포장재의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체포장용기의 개발, 보급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비록 새해도 경제 전망이 매우 어두운 것이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삼아서 기업의 구조 개선, 품질 향상 및 생산관리의 합리화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생각입니다.

귀지의 무궁한 발전과 포장산업에 종사하는 포장인 여러분 새해에도 모두 건승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ko

공급 체계 효율적 개선하는데 주력

어느덧 병술년도 저물어 갑니다.

술한 어려움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한해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PET 용기는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모양도 보잘 것 없었던 그간의 식음료 용기를 일거에 뒤바꾸어 놓은 획기적인 친시장적 상품으로서 매년 그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 되어 왔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경기침체속에서 음료소비가 부진하였지만 PET 용기는 녹차와 생수시장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예년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폭의 증가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볍고, 투명하고, 깨지지 않고, 인체에 무해한 PET 용기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PET 성형업체의 각고의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여러분과 식음료 업계의 꾸준한 사랑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가 바뀔때마다 새로운 희망과 함께 올해는 무엇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이무래도 금년의 가장 큰 화두는 대선이 아닌가 합니다.

이무쪼록 사회가 안정되고, 가정이 편안하고, 모두가 의욕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은 선진국 경제의 경착륙, 계속되고 있는 원화절상, 노사문제, 양극화문 제등 술한 난제들이 놓여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경기가 호전되고 또한 유가와 물가가 안정되어 모두가 잘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하는 사회, 발주기업과 납품기업간의 존중하는 사회, 동종 중소기업간의 협력하는 사회가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PET 용기는 식음료 업계로부터의 주문생산 방식 체계로 되어 있어서 작년만 하더라도 국제유가와 연동되어 있는 RESINE의 가격은 계속 인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품가 인하 압력이 거세어 업계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업계는 이런 지난해의 어려움을 극복한 저력의 토대 위에서 금년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은 기존의 발주 납품체계에서 벗어나 공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일부 업종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급체계를 존중하고 더욱 발전시키면서 식음료 업계와 상생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포장용기로서 가장 우수한 PET 용기가 우리생활 주변 어디에서나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업계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해년 복돼지 해를 맞이하여 포장업계의 무궁한 발전과 PET 용기와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한 규 범

(사)한국PET용기협회 회장



포장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길 기원하며



이 광 훈

(사)한국PET병재활용협회 회장

국내외 포장산업 관련 단체장 및 종사자,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의 모든 포장산업 관련 종사자 여러분에게 희망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립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들었던 지난 한 해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데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반도체 조선 등 수출 경기의 호조로 연 4%대의 경제성장을 이룬 한해였지만 내수경기가 부진하여 우리의 포장산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포장재 안전성에의 기대가 어느 해보다 높아 100% 안전한 포장재 생산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다해주신 포장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포장산업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재화인 공산품을 비롯하여 농·수·축산물의 공급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중요한 받침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두 말 할 나위없습니다. 또 포장산업은 산업구조상 소비자와 가장 밀착되어 소비자의 최종 구매의사결정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고용 인력을 창출 시키는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경제 환경은 갈수록 디지털화·글로벌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다품종 소량생산에 뛰어난 적응능력을 가진 우리 포장 산업에게는 커다란 기회가 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국의 포장산업 관련 종사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점점 차별화 되고, 독창성 없이는 도태되기 쉬운 현 무한경쟁 시장 속에서 우리 포장산업이 살아 나갈 길은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 그리고 100% 안전한 포장재의 생산 밖에 없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세계 일류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해년 상생협력하는 한 해 되길



2007년 정해년 새해를 맞아 포장인 및 포장관련업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불어 지난 한해 포장산업계의 발전과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포장인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6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내 내수 경기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FT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경제는 더욱 어려운 늪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이 개방되고 높은 기술력이 유입되어 더욱 어려워 지기 전에 스스로 자구 노력에 최선을 기울이고 기술 경쟁력과 업종의 특화된 비전과 정신으로 앞서나갈 기틀을 마련하고 업계의 모든 역량을 모아 대승적인 차원의 상생협력 전략을 마련하여 모두가 화합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포장인 및 포장관련 업계 여러분!

2007년 정해년에는 더 큰 변화의 물결과 생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세계의 초일류 기업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대처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빠르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읽고 대처하여 업계의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큰 비전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포장인과 포장업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포장협회 김선창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김 순 재

한국지합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골판지포장업계 상생 대안 마련에 주력할 터



류 종 우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년 인사를 한지 불과 엿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새해 정해년(丁亥年)을 맞이했습니다. 다사다난했다는 말로 지난해를 항상 회고합니다만,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골판지포장업계 내부를 살펴봐도 수요 위축이 지속되면서도 원자재가격이 강세를 보여 경영개선에 대한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농산물 포장재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려 신수요 창출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이러한 기대는 과당경쟁이 기업경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학습효과를 경험해 봤기에 적자 산업화 탈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출발하게 하였지만, 달라진 것 없이 한해를 마감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도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병술년을 돌아보면서 의미를 짚어 본다면, 골판지지원지업계의 구조조정 노력과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다소간의 경영여건을 호전시키는 사례를 보면서, 눈에 빠진 골판지포장업계의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하였다는 점과 포장화가 부진한 배추, 무 등에 대한 조합의 시범 출하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면서 포장을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들어 골판지지원지 가격이 전격 인상되면서 일부 골판지가격도 연동 반영되었지만, 제자리걸음만하는 골판지상자가격은 상당한 경영압박을 주어 무거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지만,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도 “따로 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골판지포장 연관업계는 상호 신뢰의 끈을 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저는 골판지포장조합 이사장으로서 정해년 새해 벽두를 맞아 우리 업계에 고착되어 있는 적자산업화의 고리를 여하히 끊고, 골판지포장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는 것에 생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값을 받지 못하는 골판지상자는 그것을 만드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만 그치지 않고,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꿈과 희망도 앓아가고, 업계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원리란 무절제한 무한경쟁이 아니라 질서있는 무한경쟁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업간 거래에는 가격 만능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신뢰 만능주의가 옳다는 생각이 앞서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판지상자 가격 제값받기에 모두 동참함으로써 500년 만에 찾아왔다는 황금돼지해에 걸 맞는 흑자경영 원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는 첫 단계로 우리 골판지포장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진솔하게 논의하고, 상자의 저가격 구도 타개를 위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 골판지지원지 및 골판지포장 5대 일관기업의 오너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어 상생의 도가 꽃피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황금돼지 해라는 정해년에는 그동안의 시름을 걷어내고 희망찬 앞날과 부푼 기대를 실현해 가는 성공적인 한해가 열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포장산업계를 포함한 월간 포장재 독자 모두가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